

경영저널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 COVER STORY** / 권영세 안동시장
- 정책조명** / 새마을운동 시대별 변천사
- 포커스 리딩** / 향토 장수기업 경쟁력 진단
- 파워인터뷰** / 김경숙 대구시소상공인지원센터장
- 기업탐방** / 대구 경북 컨벤션산업의 희망 엑스코
- 지자체는지금** / 지자체 현안 점검
- 청호평론** / 대구시에 바란다
- 재테크** / 부자되기 프로젝트-금(金)투자

»» Photo Essay **녹차 내음 속으로**

초록의 잎사귀가 하늘과 맞닿은 곳.
차(茶) 향 가득 머금은 곳, 바람에 묻어온 그 내음 이슬 담아 내 마음에 간했다.
그 곳에 간다면, 보성에 간다면, 녹차밭에 서 있다면...



글/이한나 기자·사진/전남 보성군

경영저널 www.managementjournal.co.kr 통권 제24호

발행인 서은주 | 편집인 조종성 | 등록번호 경북라06394 | 창간 2007년 11월 5일 | 편집위원 윤일형, 정성민, 박홍식, 장승욱 | 취재부장 서기대 | 취재기자 장경태, 홍순대, 손지강

편집 이한나 | 사진 김기환 | 등록일자 2011년 3월 22일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TEL 053)766-1368 | FAX 053)766-1356

인쇄 삼영정밀인쇄사 | 가격 5,000원



C

Contents

- 02 _ Photo essay / 녹차 내음 속으로
- 04 _ News wide /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동 구매 확대
- 06 _ Economic trend / 대구 경북 수출 증가세 한풀 꺾여
- 08 _ Cover story / 권영세 안동시장
- 12 _ 정책조명 / 새마을 운동 시대별 변천사
- 14 _ 전문가 기고 / 중소기업과 벤처캐피탈의 아름다운 동행
- 16 _ Focus reading / 장수기업 DNA 뭐가 다른가
- 20 _ 기업탐방 / 대구·경북 컨벤션산업의 희망 EXCO
- 22 _ Success story / '고장난 아이폰' 순식간에 똑딱
- 24 _ Power interview / 김경숙 대구시소상공인지원센터장
- 25 _ 컨설팅 리뷰 / 김경숙 센터장의 창업상담실 Q&A
- 26 _ 청호평론 / 대구시에 바란다
- 27 _ Travel sketch / 안동 하회마을
- 28 _ 재테크 / 금(金)투자 관심집중
- 30 _ Life style / 올 여름 메이크업 유행 트렌드
- 32 _ 지자체는 지금 / 대구 중구청 '내우외환'
- 33 _ 통계로 보는 대구·경북 농어촌 / 대구 농업인구 증가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 연 48,000원
신청 방법 : 전화, 053) 766-1368
이메일, kepiglobal@kepi.or.kr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기관일 경우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기재)
입금 계좌 : 대구은행 225-12-003611
국민은행 698301-04-034744 (주)경영저널

<독자 투고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지 1장(글자10포인트)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706-842 경영저널 편집국
TEL. 053) 766-1368
FAX. 053) 766-1356
독자기고팀(kepiglobal@kepi.or.kr)



Political & Economic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올해 대구·경북지역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지역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액은 지난해의 3조7천44억원에 비해 9.4%(3천477억원) 늘어난 4조521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전체 구매제품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을 50%이상 의무 구매해야 한다. 이와함께 기술개발제품도 물품과 공사, 용역을 포함해 중소기업제품을 10%이상 의무 구매해야 한다. 대구·경북의 공공기관은 총 69곳이며, 이들 기관의 올해 총 구매액은 4조9천325억원으로, 이 중 중소기업제품은 4조521억원(82.2%)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분위기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경북개발공사 등 지역 주요기관을 구매계획 작성기관으로 추가해 지난해 6개기관에서 올해는 11곳으로 확대했다. 또 매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점검하고, 실적과 판로 지원법 위반기관을 국무회의에 보고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포함된 입찰공고 중 제도 위반이 의심되는 입찰공고를 자동검색할 수 있는 '공공구매입찰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지난 4월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편 중소기업이 시공사(건설사)가 아닌 공공기관에 직접 공사용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본 대지진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수 조달물품에 지역 업체 제품 6개 지정

조달청은 최근 우수 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을 갖고, 중소기업 제품 41개를 우수 조달물품에 지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달물품은 외부 전문가의 기술 심사를 거쳐 총 118개 신청 제품 중 신기술제품 8개와 특허제품 33개 등 41개 제품이 선정됐다. 대구·경북에서는 청성전기(주)의 주력 제품인 감전방지형 고압저압 배전반과 탐인더스트리(주)의 원방감시제어장치, (유)동일석재의 굴림보도판석, 경동산업의 합성목재, (주)고리의 삼중벽 내충격 수도관, (주)세연의 사무용 칸막이 등 6개 제품이 지정됐다.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 계약 방식으로 공

공기관에 우선 공급되며, 공공조달 물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또 우수 조달 물품에 지정된 업체는 조달청의 판로지원을 기반으로 매출 확대를 통한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욱 대구지방조달청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기술개발제품들이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우수 조달물품에 대해선 정부조달시장에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전담기관 출범

대구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지원센터가 바이오헬스융합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고령사회의 핵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지역 육성 전담기관으로 거듭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26년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웃도는 등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의 바이오, 덴탈, 의료기기, U-헬스 등 관련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바이오산업지원센터는 기존의 건강기능성 소재개발 및 제품생산 지원은 물론 덴탈 수출, 힐링푸드 클러스터사업, 생체고분자 개발 및 생산, 생체진단기술 등 바이오기술과 다른 산업간 연계 융합을 통한 관련산업의 지역 거점기관으로 면모를 갖추게 된다.

바이오 헬스산업은 지난 2007년 17.5%에서, 2009년엔 24.9%까지 성장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는 2026년엔 국내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삼성, SK 등 대기업들의 진출이 잇따르고 있는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대구지역에서는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산업 관련 육성책이 마련돼 왔지만 이들 업체를 지원할 전담기관이 전무한 형편이었다. 또 지난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과 함께 IT를 융합한 스마트 헬스케어 및 덴탈산업 등 바이오헬스융합산업의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등 전담기관 조성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기동 바이오헬스융합센터장은 “바이오융합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신규사업 수주와 역외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해 관련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텐탈소재 및 치기공클러스터 활성화사업과 힐링용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예산 114억원과 35억원을 각각 유치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R&D 장비 통합관리 체계로 개편

지식경제부가 기존 R&D(연구개발)장비 분산 관리에서 통합 관리 체계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R&D 시스템 혁신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연구장비 관리단을 설치하고, 지경부가 지원하는 3천만원 이상의 R&D 장비를 대상으로 도입 심의, 구매·공급, 유지·보수, 재활용까지 통합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경부의 연구장비 도입 심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에 분산됐고 각각의 장비는 230여개가 넘는 사업수행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해 왔다.

이 때문에 같은 장비가 기관별, 사업별로 중복 구매 되거나 필요 이상의 높은 사양 장비가 구입되고 장비 가격이 부풀려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없지 않았다. 이와함께 각 연구기관의 예산 및 전문성 부족으로 유지, 보수가 제때 어려워 수명단축은 물론 활용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관리단은 이에 따라 기존 사업수행기관별로 구매되던 장비를 각 기관의 수요에 기반해 통합 구매공고 절차를 거쳐 일괄 구매,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장비활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파악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 빈도가 낮거나 장기간 가동하지 않은 장비는 다른 기관에 재배치하거나 공동 활용 장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경부 정양호 산업기술정책관은 “R&D 장비의 전 주기 통합 관리를 통해 향후 5년간 1천800억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연구기관 또한 장비 관련 업무를 줄이고, 공동활용장비 확

충으로 연구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D사업 상위평가 6월까지 실시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2011년도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한 상위평가를 6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부의 올해 상위평가에서는 사업수행기간과 예상규모, 사업내용 등에 따라 차별 평가를 하고 R&D사업의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질적 평가 배점을 올리는 동시에 평가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처별 자체 평가가 관대하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대상사업수가 총 5개 이상인 부처에 대해선 상대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7월 중으로 최종 확정해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무역실무 강좌 시스템 서비스 본격화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온라인 무역실무 강좌 시스템인 ‘스마트러닝’(cyber.tradecampus.com)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회원업체 대상의 온라인 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마련된 ‘스마트러닝’은 신용장, 수출입계약, 외환, 비즈니스 외국어 등 총 250여 무역실무 정규과정과 전문가코스, ‘프리 경영학석사(pre-MBA)’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무협은 이번 스마트러닝 서비스 실시에 맞춰 기존 무역아카데미의 오프라인 교육기반을 토대로 온라인 기반의 e-러닝과 태블릿PC 등 모바일러닝을 유기적으로 결합, 회원업체에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무역협회 국내지부 및 지자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지방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무협은 또 무역실무, 외환 및 금융, 국제무역사 및 외환관리사 등 자격시험과 FTA 활용방안 등 콘텐츠를 확충하고 비즈니스 외국어 등 성공적인 국제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한 콘텐츠를 제휴, 회원업체에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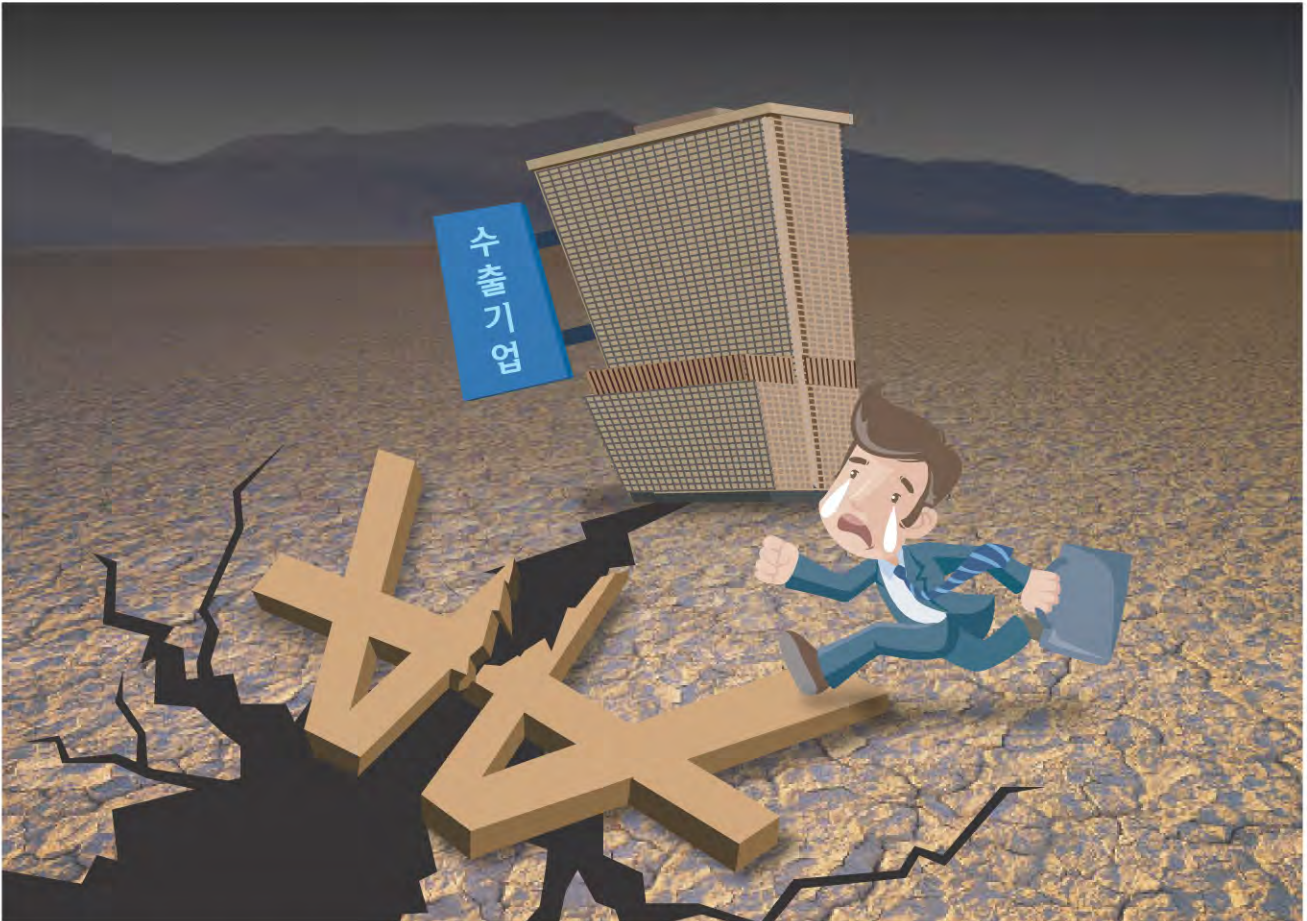
이와함께 고용보험 환급 과정 운영과 선택적 부분수강제 도입, 단체 위탁 연수기업에 대한 추가 할인을 통해 회원업체들의 교육비용 절감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무협 관계자는 “스마트러닝 서비스가 정착될 경우 무역실무 향상 등 무역업계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기존 내수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순대 산업전문기자

대구·경북 수출 증가세 한풀 꺾여

일본 대지진, 고유가, 금융권 대출 금리 인상 등 각종 악재
구제역 여파로 대구·경북 한·육우 사육마릿수 감소



대구·경북지역 수출기업들의 단기 업황전망이 어둡게 나왔다. 일본 대지진, 고유가, 금융권 대출 금리 인상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2분기(4~6월)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대구·경북 상장법인들의 영업실적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 여파로 한우, 돼지 사육마릿수가 급감하는 등 지역 축산농가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기업 단기 경기전망 악화

2분기 대구·경북의 수출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고유가에 따른 원가상승부담과 일본 동·북부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인한 관련 산업의 수급차질, 금리인상 여파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등이 수출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주된 악재로 풀이된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지역 주요 수출업체 300곳을 대상으

로 수출산업경기전망(EBSI)을 조사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지역 수출기업들의 EBSI는 103.4를 기록해 지난 1분기(1~3월)의 107.3에 비해 3.9포인트 떨어졌다.

EBSI가 100이상이면 경기악화보다는 호전을, 100이하는 그 반대를 의미하는 업체들이 많다는 뜻이다. 일본 대지진과 중동지역 정정불안 등 대외적 악화에 따라 주요 수출국 경기가 기준치 100을 밑도는 95.3까지 하락했다.

이는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간 1분기(117.8)보다 22.5 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지역 주력산업인 섬유류 수출은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섬유제품의 경기 EBSI는 전분기 보다 15 포인트 하락한 77.1에 그쳤다.

수출상품제조원가와 자금사정 수출단가도 각각 64.6, 77.1, 75.0을 기록해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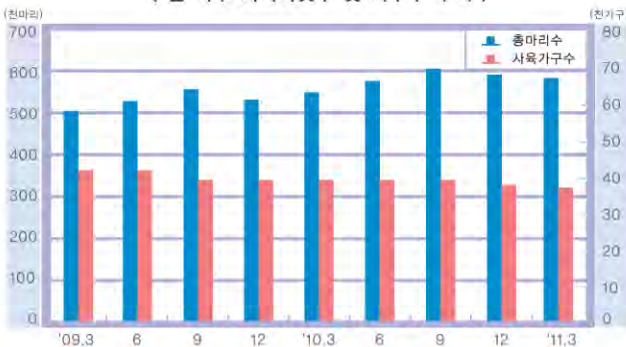
철강제품도 업황 전망이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조사됐다. 수

출상담(128.8)과 수출계약(117.8)은 호조세를, 반면 수출상품 제조원가(43.2), 수출채산성(54.2) 등은 부진세를 지속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기기의 경우 전반적 경기 EBSI가 100을 유지, 보험권을 유지했다. 반면 경북 구미 중심의 휴대폰 제품의 수출 호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휴대폰 제품의 EBSI는 113.0을 기록, 1분기의 135.3에 비해선 큰 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 100을 웃돈 수준을 유지했다.

〈 한·육우 사육마릿수 및 가구수 추이 〉



한·육우 사육두수 감소

구제역 여파로 대구·경북의 한·육우 사육마릿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올들어 처음으로 지난 3월1일 실시한 가축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58만5천마리로 전분기(12월기준)보다 1만3천마리(2.2%) 감소했다.

이는 전국 한·육우 사육마릿수의 20.3%에 달하는 것이다. 한·육우 사육마릿수가 이처럼 감소한 것은 구제역 확산에 따라 매몰처분된 가축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돼지 사육마릿수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 기간 지역의 돼지 사육마릿수는 96만9천마리를 기록해 전분기보다 29만3천마리(23.2%) 감소했다. 반면 산란계 중심으로 닭사육마릿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역의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1천198만7천마리로, 13만6천마리(1.1%)증가했다. 최근 산지 계란 가격이 오르면서 사육농가에서 병아리 도입을 늘리고 노후 산란계 처분을 줄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육계 사육마릿수는 전분기보다 174만9천마리(21.3%) 감소한 644만9천마리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동북지방통계청 측은 “육계 사육마릿수가 감소한 것은 산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농가에서 병아리 도입을 크게 줄인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상장법인 매출 급증

12월 결산 대구·경북 상장법인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8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가 최근 대구·경북의 12월 결산 상장법인 89곳 중 비교 가능한 72곳을 대상으로 영업실적 규모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상장법인의 지난해 매출액은 53조3천511억원으로, 전년보다 18.3%(8조2천581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6조3천286억원을 기록, 전년보다 51.2%(2조1천431억원) 늘어났으며, 이 기간 순이익도 35.1%(1조3천702억원) 증가한 5조2천759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역 상장법인의 실적이 이처럼 개선된 것은 수출호조 등 경기회복에 따라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과 화학, 자동차부품 등을 중심으로 영업실적이 큰 폭 개선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장별로 매출액 증감율을 살펴보면 지역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지난해 매출액은 46조8천133억원으로 전년보다 18.46%(7조2천963억원) 증가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역시 매출액이 6조5천378억원을 기록해 17.25%(9천618억원) 급증했다. 흑자기업은 61곳(84.7%)이며, 이 가운데 전년 대비 흑자전환 기업도 6곳(8.3%)에 달했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의 흑자기업은 21곳, 적자기업은 4곳이었으며, 코스닥시장에서는 흑자기업과 적자기업이 각각 40곳, 7곳을 차지했다.

지난해 지역 상장법인의 매출액 상위 5위 업체로는 포스코(32조5천820억3천700만원), 제일모직(5조185억9천400만원), 대구은행(2조7천105억4천700만원), 포스코강판(1조17억7천400만원), 웅진케미칼(9천111억9천400만원) 순이었다.

또 영업이익 상위 5위 상장법인에는 포스코(5조470억4천600만원), 제일모직(3천341억5천600만원), 대구은행(2천997억8천700만원), OCI머티리얼즈(787억900만원), 포스코캠텍(701억9천만원)이 올랐다.

손지장 통계전문기자



권영세 안동시장

출생 1953년 안동
학력 경북고·영남대 법학과
경북대 대학원 행정학과
경력 영양군수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운영국장
소방방재청 정책홍보 본부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수상 홍조근정훈장, 대통령 표창

권영세 안동시장(58)이 오는 7월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안동 출신인 권 시장은 '고향 사랑'이 남다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시민 모두가 잘 사는 살기 좋은 도시 '안동 건설'에 불철주야 매진하고 있다. 지난 1977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사회에 몸을 담은 권 시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행정전문가로도 이름이 높다. 정통 관료출신답게 34년간의 공직사회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약사업을 철저히 수행하면서 안동을 품격높은 도시로 변모시키고 있다. 권 시장은 본보와의 대담에서 17만 시민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안동 발전에 헌신하는 '참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안동시민에게 꿈과 희망 심어주는 시정 펼칠 터 ” (市政)

일문일답

Q 도청이전에 따른 안동시만의 도시경쟁력 및 시너지 효과는?

A 경북도청은 경상도 지명이 생긴지 700년이 되는 2014년 안동과 부근지역에 조성됩니다. 도청 이전 예정지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으로 청정 낙동강과 풍부한 산림자원으로 둘러싸여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예컨대 북쪽은 아름다운 검무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구담습지와 하회마을을 접하고, 남동쪽에는 호민지(好民池)의 대형저수지와 청정 하천인 내성천(乃城川)이 서쪽 5Km 지점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북 북부권은 낙동강 상류라는 입지적 제약과 한계 탓에 오랜 기간 산업화에서 소외되고 희생되어 왔습니다.

뿌리 깊은 문화 유산과 뛰어난 인재의 산실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수자원을 공급하는 청정지역으로 보존되면서 개발에서 늘 뒷전으로 밀려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시 발전 양상과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 가속화 속에 녹색시대, 바이오시대, 생명산업 시대가 대접받고 있습니다.

우리네 삶 또한 돈이 목적이 아닌 사람과 사랑, 행복으로 압축되는 본질적인 가치, 즉 정신적인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정신에 가장 적합한 대표 도시가 바로 '안동'입니다.

경북도청 이전은 분명 미래사회가 원하는 안동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모멘텀(Momentum)이 될 것입니다.

안동은 현재의 삶 속에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도시 모델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크나큰 도시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안동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 안동은 앞으로 새로운 행정 업무의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젊은 층 유입과 광역 교통망을 비롯한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토대로 안동의 강점인 바이오산업과 문화산업, 생명산업이 꽃을 피워 굴뚝 없는 21세기형 산업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그린 - 컬처 노믹스'의 대표도시로 세계가 주목할 것이라 예기합니다. 정신문화도 더욱 꽃을 피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도청 소재지로 명실상부한 경북의 대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내적 성숙함을 완성하는데도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안동은 나아가 외부적으로 광역권의 허브도시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21세기 도시 경쟁력은 어느 한곳만 집중 발전하는 모델이 아니라 인근 도시, 나아가 세계 각국의 도시와의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동반 성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말해 교류를 통한 문화 재생산과 지식 재생산이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은 향후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중추 도시뿐 아니라 충청권과 강원권, 수도권을 연계하는 광역단위의 복합 교류거점 도시로써 낙후된 중부권역 발전의 교두보로 성장과 발전을 달성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경북의 새로운 역사가 안동에서 시작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그 첫 단추인 도청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Q 바이오 도시 육성책에 대해?

A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지역은 풍부한 생물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동은 지난 2002년부터 '지역균형발전 및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기조 변화에 발맞춰 바이오산업과 문화산업을 양대 축으로 하는 지역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북 전략산업 발전정책에 상주~안동~울진 중심의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포함시킴으로써 바이오 도시 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2004년 지식경제부 지역 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설립하고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동 뿐만 아니라 경북지역의 바이오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을 통한 창업보육 기능을 수



행하는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지역기업들의 고부가 가치 제품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풍산읍 일원의 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사업을 추진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도시 안동 육성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백신원료 맞춤형 생산지원 사업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국내 백신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SK케미칼(주) 유치를 성사 시킴으로써 향후 5년간 1천200억원 투자 등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내 국내 최대 세포배양 백신공장을 건립하는 쾌거를 일군 것입니다.

이외에도 풍산읍 일원에 94만4천126㎡ 규모로 경북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동시에 약용작물개발센터와 우수한약재유통생산시설을 건립하는 등 바이오산업 관련 인프라를 속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될 바이오산업 육성에 지속적인 투자, 지원과 함께 행정시스템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이오 도시 육성을 통해 안동을 전통, 문화와 함께 첨단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Q 기업유치 전략과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전담인력을 구성하고, 투자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등 투자정보 수요자인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타깃(Target) 기업을 설정하고 직접 방문, 교류에 뛰어든고 있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아울러 이설·증설 등 정확한 기업투자정보 입수를 통한 적시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기업체별 차별화된 유치책의 하나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등 안동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서 6축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으로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확정되면서 투자환경이 크게 나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국내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기업유치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안동시가 상위 15개 시·군·구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둔 것도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안동시는 기업유치를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안동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성공투자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량 기업유치에 전력을 쏟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동' 육성에 매진하겠습니다.

Q 안동시만의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이 있다면?

A 대표적 프로젝트 중 하나가 문화콘텐츠 제작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이는 안동만의 차별화된 이른바 '문화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대표적 모델이기도 합니다.

안동 역시 청년층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직 상태인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공연콘텐츠 제작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관광자원을 테마로 하는 하이브리드(Hybrid) 문화·관광·공연을 통해서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450년사랑', '락-나라를 아느냐', '옹부안동 쇼', '엄마까투리' 등 안동의 역사와 인물 그리고 이야기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물은 이미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희소성과 차별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성과를 계기로 안동시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전통 문화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기반확충 △전문인력양성 △문화콘텐츠 개발 확대 등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탈춤공연장, 문화관광단지, 하회마을, 안동민속촌 등 지역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해 공연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는 등 안동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잠재적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사업 콘텐츠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고용창출을 연간 500여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청년층 취업난 해소에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민선 5기 1주년을 평가한다면?

A 지난해는 취임이후 시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안동' 구현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던 한 해로 평가됩니다. 시민들과 약속했던 38개 공약사업에 대해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바탕으로 사업 구상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보다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비롯한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행복안동'을 구현하는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 조직을 업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민들을 위한 시정 구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성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조원이 투입되는 3대문화권, 그린리버리지,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신발전 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추진에 청신호를 켜 상태입니다.

지난 2008년 연말 낙동강 선도지구로 첫 삽을 뜬 안동2지구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시민휴식공간 및 생태공원으로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등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예정대로 6월 중 마무리되면 영남의 젓줄인 낙동강 개발에 새로운 역사를 쓸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복안동' 건설을 위한 노력은 이뿐 만이 아닙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하회마을을 한국의 역사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함께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24일에는 안동버스터미널을 이전했으며, 다음날인 1월25일에는 남선 신석~수상 구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개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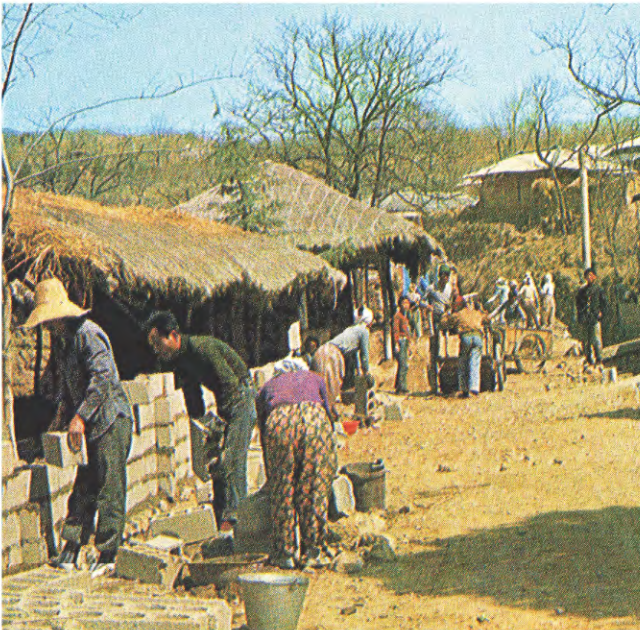
안동시장 당선 당시 저는 시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 초심(初心)을 잊지 않고 시민을 위해 어떠한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약을 완성,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17만 시민의 행복과 안동의 번영을 위해 시장인 저가 먼저 뛰겠습니다.

'품격높은 도시', '풍요로운 시민', '행복안동' 건설에 모든 역량과 열정을 한데 쏟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담=조종성 편집국장
정리=서기대 취재부장

새마을운동 시대별 변천사



‘새마을의 날’이 지난 4월22일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조국 근대화에 크게 기여한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 41년 만이다. 새마을 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를 지닌다. 한때 낡고 퇴색된 운동으로 취급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미래선진 대한민국 건설에 기여하는 새로운 모습의 시대적 역할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40여 년의 질곡의 역사와 함께 국가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 새마을운동의 시대별 운동사(史)를 진단·점검한다.

70년대 '살기 좋은 고장 만들자' 취지로 출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70년대 새마을 운동은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제창으로 '우리 마을을 우리의 힘으로 새롭게 바꾸어 보자'는 운동의 하나로 농촌을 중심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이 시기 새마을 운동은 초가집 없애기, 블록 담장으로 바꾸기, 마을 안길 넓히기, 다리놓기, 농로 넓히기, 공동 빨래터 설치 등 기초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자 주민들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마을회관 건립과 상수도 설치, 특용작물 재배 등 사업 규모를 확대, 추진함과 동시에 농가소득 향상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

농촌 중심의 새마을 운동이 도시로 퍼져나간 것은 대략 74년부터다. 도시지역의 직장, 학교 등에 새마을 깃발이 펄럭이었고, 사회 주체 및 분야별로 성장·발전 전략을 꾀하는 다양한 실천과제를 선보였다. 일거리 창출도 본격화되었다.

학교에서는 부모 공경하기 등 예절교육을 강화했고, 직장에서는 새마을 분임조 활동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물자절약, 노사관계 정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거주지별로는 반상회를 통해 저축하기, 청소 및 거리질서 캠페인을 적극 전개했다.

70년대 새마을 운동은 농촌에서 도시로 전국 곳곳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조국 근대화를 앞당기는 원동력으로 큰 힘을 보탠 시기로 평가된다.

80년대 정부주도 민간조직중심으로 전환

정치, 사회, 경제적 급변기였던 80년대 새마을 운동은 다소 침체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 시기 새마을운동은 새마을 운동중앙회 발족 등 기존의 정부 주도에서 민간조직 중심으로 전환되는 결실을 거뒀다. 당시 새마을 운동은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치유 등 국민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정신적 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대표적 사업으로 식생활 개선 및 소비절약, 재활용품 모으기 및 독서생활화, 재활용품 모으기 등 의식개혁운동을 꼽을 수 있다.

90년대 건강한 사회 건설 원동력

90년대들어 우리 사회는 민주화와 개방화 흐름에 따라 자기 몫을 챙기겠다는 과도한 이기주의와 무질서 및 과소비가 극성을 부리는 등 적지않은 사회적 갈등을 빚었다. 이 때문에 이 시기 새마을 운동은 국민의식개혁 및 환경보존운동, 농어촌가꾸기 및 이웃사랑운동 등 도덕성 회복과 환경보호를 통한 건강한 사회 구축에 힘을 쏟았다. 30분 일 더하기운동은 물론 사치·향락·과소비 자제 운동을 적극 펼쳐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97년 발발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금모으기 및 저축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국가경제위

기 극복에 적극 동참했다. 전국 읍·면·동 단위에서 민간사회 안전망협의체를 구성하고 소외 계층을 돕는 등 어려운 이웃 사랑 운동도 활발히 펼쳤다. 90년대 후반 남북 교류사업이 확대, 추진되자 겨울 의류 및 감귤보내기 운동 등 대북지원사업에도 앞장섰다.

2000년대 새마을운동 세계화 역사적 의의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세계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한 2000년대 새마을 운동은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 만들기'를 이념으로 이 시기 새마을 운동은 지역 현장 중심의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각계 조직과의 연대 협력을 확대 추진하는 등 민간자율운동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행정기관과의 건전한 파트너십 구축은 물론 조직 자율역량 제고 등 변화와 혁신 및 사업 영역을 확대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 새마을 운동을 보급하기 시작한 시기도 바로 이 때부터다.

새마을운동은 2000년대들어 베트남,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등 저개발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장경태 정책전문기자

새마을 운동 정신은

새마을 운동에 담긴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으로, '잘 살아보자'는 인간 공동의 염원과 민족번영을 이루는 공동선(共同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운동은 또 인간 존엄성이 확보되는 개인과 사회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고 보람있는 일터를 가꾸며 건강한 사회를 조성해 자랑스러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게 궁극적 목표다. 아울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건설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이웃,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조국을 건설하자는 게 기본 이념이다.

새마을의 '새'가 지니는 의미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적으로 새롭게 변화하자는 뜻을 함축하고 있으며, '마을'은 공간적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생활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다. 이 운동의 밑바탕에는 성장주의도 깔려있다. 가난을 탈피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잘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등 복지주의도 지향하고 있다. 이와함께 양시(兩是)주의도 강조하고 있는데,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미풍양속 등 변하지 않는 전통 및 문화에 대한 미덕도 중요시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시대변화에 발맞춰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선진 일류국가 조성을 목표로 한 '뉴새마을운동'은 GREEN Korea(그린 코리아), SMART Korea(스마트 코리아), HAPPY Korea(해피 코리아), GLOBAL Korea(글로벌 코리아) 운동 등 4대 중점 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벤처캐피탈의 아름다운 동행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창업 초기기업 투자유도 건전한 질적 성장, 투자 규모 확대 가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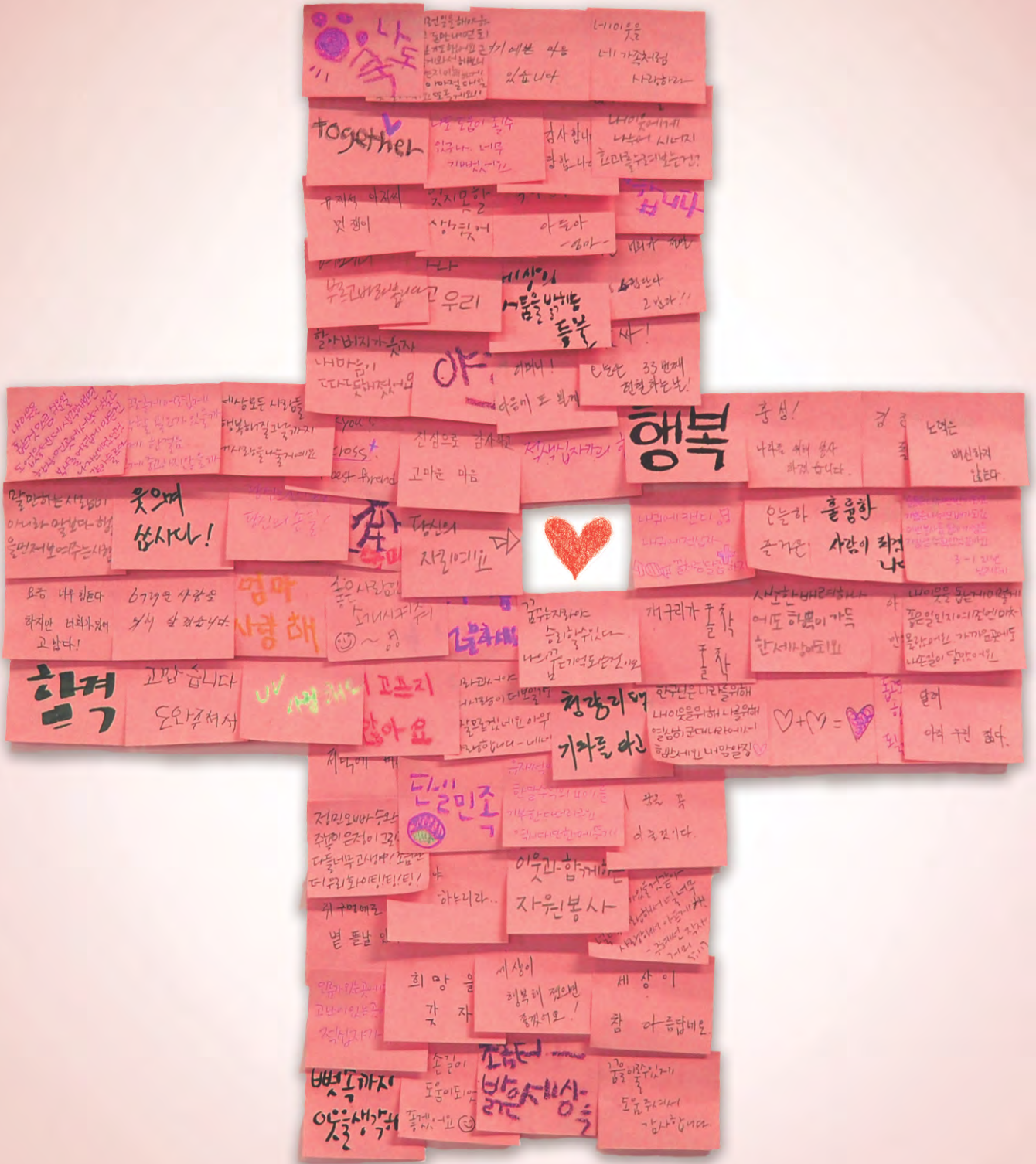


이상철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기업가 정신 최대 실천 국가는 의심할 바 없이 한국이다.’ 경영학의 아버지 고(故) 피터드러커 박사의 말이다. 한국을 지켜보던 세계 각국의 시선들 역시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한동안 주목받았던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은 급격한 쇠락을 거듭하고 있다. 20·30대 벤처CEO 비중을 보면 1999년도 58%에서 2009년에는 11.4%로 불과 10년 사이에 5분의 1로 떨어졌고, 최근 대한상의가 최고경영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2%가 ‘기업가 정신이 위축됐다.’ 라고 응답하는 등 각종 조사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기업가 정신의 쇠퇴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위험을 기피하려는 보수화 경향이 고착화되면서 그 원인을 찾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은 신규투자를 꺼리고 청년들은 창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구직만을 위한 스펙 쌓기에 매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창업이 말처럼 녹녹치 않음은 분명하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2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창업 후 3년 생존율이 49%밖에 안 될 정도로 실패의 위험이 높다는 것과, 창업초기 자금조달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벤처기업 정밀실태 조사결과 창업초기기업의 82.5%가 자금조달을 가장 큰 애로로 꼽아 창업초기기업이 겪는 자금조달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창업초기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는 기업가 정신뿐만 아니라 창업의 열기마저 앓아가면서 일자리 창출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기업가 정신복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는 창업초기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요원하다고 보고 창업단계(엔젤) → 사업화단계(벤처캐피탈) → 성장단계(코스닥)를 통한 자금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창업초기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자위주에서 투자로의 전환을 위해 벤처캐피탈이 창업초기펀드를 결성할 경우, 모태펀드에서 우선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창업 초기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벤처버블로 붕괴 되다시피 한 엔젤투자의 부활을 꿈꾸며 100억원대의 펀드조성과 투자소득 공제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실로 우리의 벤처투자시장은 최근 5년간 1.2조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하는 등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투자규모는 GDP 대비 0.13%(3.2조원)로 투자 선진국인 이스라엘(1%)과 미국(0.2%)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다. 하지만 벤처캐피탈 산업 선진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그간 업계의 지구노력들이 최근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기와 맞물리면서 건전한 질적 성장과 투자 규모의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어 반가운 일이다. 이제 예비창업자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기업은 IR(기업설명)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벤처캐피탈협회가 매월 개최하는 ‘벤처투자사랑방’ 과 ‘투자로드쇼’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관행처럼 여겨왔던 대출위주의 자금조달에서 신용리스크를 줄여주는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름만으로도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그리고 NHN, 휴맥스, 안철수연구소 등의 공통점은 바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아 성공한 기업들이다.

‘혼자가면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라는 말이 있다. 중소기업과 벤처캐피탈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동반성장’ 이라는 새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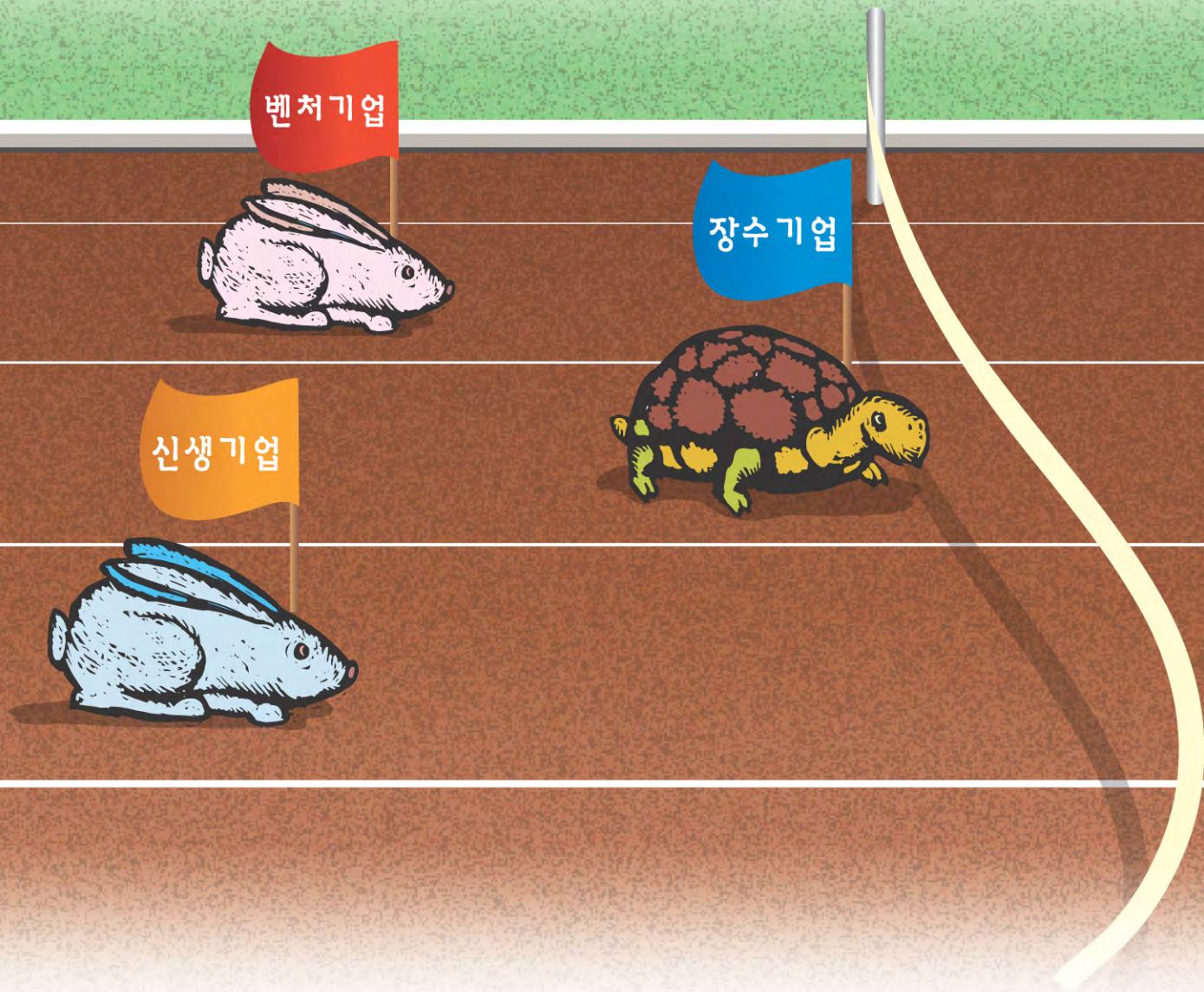


당신의 마음을 붙여주세요.

너와 나, 우리가 채워나가는 세상
 우리의 자발적인 봉사문화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 적십자와 함께하세요!

장수기업 DNA 뭐가 다른가 '가족경영·단일아이템 기업 많다'

향토 장수기업 경쟁력 진단



모든 기업들은 장수(長壽)를 꿈꾼다. 경영 이념 중 최우선 과제로 '계속기업'으로 성장, 발전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모두가 장수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산업계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산업화 이후 오일쇼크, 외환위기 등 각종 위기 앞에서 많은 업체들이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지난 1896년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에 편입된 12개 종목 중 고작 제너럴 일렉트릭(GE)만이 유일하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만 봐도 얼마나 어려운지 절실히 엿볼 수 있다. 위기의 순간을 차례차례 극복하며 장수기업으로 성장한 향토 기업들의 경쟁력에 새삼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향토 장수기업의 경쟁력과 성공전략, 위기대처능력을 진단한다.

한우물만 고집한다

향토 장수기업들의 닦은꼴은 사업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 열의 아홉은 창사이래 줄곧 단일 사업 아이템만을 고집하고 있는 등 한 우물을 파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지난 1927년 대구오일상회로 출발한 84년 전통의 경북광유가 대표적이다.

창사 이래 오직 유류판매 외길만을 고집하며 지역 대표 장수기업으로 성장한 이 업체는 5월 현재 고(故) 박재관 창업주와 선친인 고(故) 박진희 회장 이어 박 회장의 셋째 딸인 박운경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외형 확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만 25개의 직영 유류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등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류·주정업계에서도 한 우물만을 고집하는 장수기업에 눈길이 쏠린다.

1953년, 1957년 각각 문을 연 코스닥 상장업체인 풍국주정과 참소주, 화랑, 경주법주를 주력제품으로 내놓고 있는 금북주가 이 경우에 속한다.

1970년 설립된 대구탁주도 4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 대표 주류업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애주자들이 즐겨 마시는 불로막걸리가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섬유업계에서는 국내 최대 섬유 종합 메이커로 성장한 성안이 이 범주에 속한다. 58년 역사의 성안은 1953년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서 목재 직물 기기 16대로 직물업체를 세우면서 첫 발을 내딛었다.

세계 100여국 이상의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는 이 업체는 스타텍스, 소프실 등 폴리직물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결산 기준으로 매출액(계열사 포함)만 2천800억원을 웃돈 것으로 파악된다.

유통업체 중에서는 1944년 문을 연 대구백화점이 대표적 장수기업에 꼽힌다.

대구백화점은 특히 38년 역사의 동아백화점이 지난해 이랜드그룹의 유통사업부문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에 매각된 이후 향토 백화점 중 유일하게 명맥을 잇고 있다.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공룡자본을 앞세운 수도권 유통업체들의 지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체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역 주력 업종인 자동차 부품업체에서도 한 우물만을 고집하는 장수 기업들이 유난히 많아 보인다.

1950년 평화고무공업사로 출발한 평화산업과 1954년 삼립자동차공업회사로 시작한 에스엘, 1961년 대구 북구 칠성동에 문을 연 자동차 구동부품 전문 제조업체 경창산업 등이 대표 업체로 꼽힌다.

자동차부품산업은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글로벌 수요 증가 등 수출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제2의 성장기를 맞고 있다.

안정적 고용 유지 등 지역 경제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알루미늄 판재 전문 생산업체인 조일알미늄의 경우 1934년 환산 전기백화점을 모태로, 철강업계에서는 1946년 경북 김천에서 출발한 태창철강이 대를 이어 한 우물만을 고집하는 향토 장수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사업다각화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이 처럼 한 우물만을 고집하는 업체와는 달리 시대 상황에 맞게 사업 다각화 등 주력제품을 바꿔가며 장수기업 반열에 오른 향토 업체도 적지 않다.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업체인 삼익THK가 이 범주에 속한다.

1960년 창업 당시 산업용 줄에서, 70년 삼익쌀통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한 이 업체는 최근들어서는 LM시스템 등 자동화 설비 시스템을 주력제품으로 내놓으며 고도 성장기를 맞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실적 호전 등 긍정적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경기회복에 따른 전방업체의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 이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이후 1천원대까지 추락했던 이 업체 주식은 최근들어 주당 9천원 이상까지 치솟고 있는 등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업체 중에는 1878년 창업한 133년 전통의 GE가 이 경우에 속한다.

GE는 창업초기 정부의 규제를 피해 전력 사업에서 제조업체로 영역을 변경했고, 다시 1980년대들어서는 주력제품인 가정용품을 매각한 후 첨단기술 및 금융업에 진출하며 초우량 기업 반열에 오른 케이스다.



‘가족경영’ 선호

향토 장수기업들의 공통점은 지배구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경영권을 후손에게 대물림하고 있는 등 ‘가족경영’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유사점을 지닌다.

‘가족경영’은 비(非)가족기업에 비해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장기 투자뿐 아니라 제품 경쟁력 향상에 유리하고, 선대(先代)로부터 축적된 기술 경쟁력 덕분에 품질 수준이 뛰어나다는 강점을 지닌다.

여기에는 소유권이 집중돼 생산성 향상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노사화합 장수기업 도약 위한 밑거름

장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사화합 역시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분석된다.

향토기업 중 노사화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장수기업으로는 철강업체인 태창철강과 섬유업체 성안 등이 꼽힌다. 성안 박용관 회장은 지난 1995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당시 자본금의 25%에 달하는 주식 22만주를 액면가로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하는 등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힘 쏟고 있다. 노사 상생 문화 정착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셈이다.

65년 역사의 태창철강 역시 신입사원 기준으로 급여 수준이 국내 대기업에 결코 뒤지지 않는 등 직원복지에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

위기의 순간도 많았다

장수기업이라고 해서 순탄한 길만 펼쳐진 것은 아니다. 위기 순간도 여러 차례 있었다.

지역 장수기업들은 대표적 위기시기로 1973년과 1978년 두

차례 발발한 오일쇼크를 빠트리지 않는다.

특히 1997년 발발한 외환위기는 이보다 더욱 혹독한 시련의 시기로 기억되고 있다.

외환위기 후폭풍 여파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줄을 죄면서 지역 간판 건설업체인 청구, 우방, 보성 등이 줄줄이 쓰러졌으며, 갑을, 동국 등 지역 굴지의 섬유 업체들도 경영난으로 무너져야 했다.

외환위기는 그러나 살아남은 장수 기업들에게는 위기관리능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등 체질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 대표 상장법인인 화성산업과 대구백화점을 살펴보면 더욱 확연해진다.

대구백화점은 창업 이래 주력분야를 유통산업에서 건설업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케이스다.

당시 금융권에서 빌린 부채만 1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강도높은 자구책을 펼친 대구백화점은 2000년 조기 워크아웃 탈출에 성공했고, 내실경영에 집중하면서 우량기업으로 면모를 갖추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대구은행의 일반대출금 50억원을 갚았고, 이후부터 무차입경영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958년 설립된 화성산업도 이와 엇비슷해 보인다.

화성산업은 외환위기 당시 미분량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면서 워크아웃에 빠져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강도높은 기업회생 노력을 펼친 덕분에 위기 탈출에 조기 성공할 수 있었다.

5월 현재 이 업체의 부채비율은 업계 최저수준인 110%대에 그치고 있는 등 탄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장수기업 도약 극소수

우리나라의 경우 100년을 넘긴 최고령 장수기업은 1896년 설립된 두산과, 1897년 문을 연 동화약품공업(주) 등 두 곳에 그친다.

상당수 신생기업이 이처럼 장수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주된 이유는 기업 환경 변화 등 시시 때때로 찾아오는 위기상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원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기업도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유년기→성장기→성숙기를 거치면서 단계별로 성장통을 겪게 되는데, 장수기업이 되기 어려운 점은 성장 단계별로 찾아오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이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때문이다.

예컨대 신생기업의 경우 재무, 인적자원 측면에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존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것은 물론 제품경쟁력을 확보하고도 마케팅 부족 등의 이유로 도태되는 기업이 허다한 형편이다.

유년기를 벗어나 성장기에 접어들어도 위기는 어김없이 찾아온다.

성장기로 접어든 기업들이 겪게 되는 대표적 위기 중 하나는 조직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여부와 직결된다.

이 시기에는 기업을 이끌고 있는 CEO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역량이 강조되는데, 비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지속할 경우 경쟁력을 잃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수기업 육성 힘모아야”

향토 장수기업 육성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저없이 꼽힌다.

포스코가 있는 포항이 국내 대표 철강도시로, 현대자동차가 위치한 울산은 자동차 도시로 각각 도약한 것처럼 장수 기업 육성은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 유치에 유독 열을 올리고 있는 대구시의 기업 지원, 육성책을 살펴보면 이와는 역행하는 분위기여서 향토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은 절실한 상황이다. 내년 6월 완공 예정인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성서5차첨단산업단지만 살펴봐도 그렇다.

대기업 등 외지업체를 우선 입주시킨 후 잔여부지에 대해 향토업체를 입주시킨다는 대구시의 방침에 따라 지역 업체에 대한 여차별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들어선 공장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구를 떠나는 향토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본보가 85만여㎡ 규모로 오는 2012년 완공될 예정인 성주군 성주일반산업단지의 기업입주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월 11일 기준으로 입주 계약을 마친 38개 업체 중 절반 이상이 대구에서 이전하는 업체로 확인됐다.

이런 현상은 칠곡, 영천, 경산 등 대구 인근에 새로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장수기업 육성은 고용안정 등 지역 경제계에 끼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지역에서 출발한 향토 기업들이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육성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기대 취재부장



대구·경북 컨벤션산업의 희망 EXCO

지역 컨벤션 산업 메카 발돋움 흑자경영 제2의 도약 발판 마련

지난 2001년 개관한 EXCO가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경영을 달성하는 등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특히 EXCO는 올해 지역 최대 행사로 추진되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함께 대규모 확장공사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수익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컨벤션산업의 희망으로 떠오른 EXCO만의 차별화 경쟁력을 진단한다.

흑자경영 달성

EXCO는 지난해 총 매출액 163억4천만원, 당기순이익 3억 원을 각각 기록해 2001년 개관한 이후 처음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어 흑자 경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EXCO는 개관 첫해와 이듬해인 2002년 각각 40여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의 적잖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올해 매출은 수익사업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보여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CO는 올해 매출목표를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184억원으로 늘려 잡고 있다.

EXCO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도시 가운데 가장 앞선 지난 2001년 4월 전시컨벤션센터를 개관했다.

이는 부산, 광주, 제주 등 지방 주요 도시에 위치한 전시컨벤션센터 가운데 가장 앞서 조성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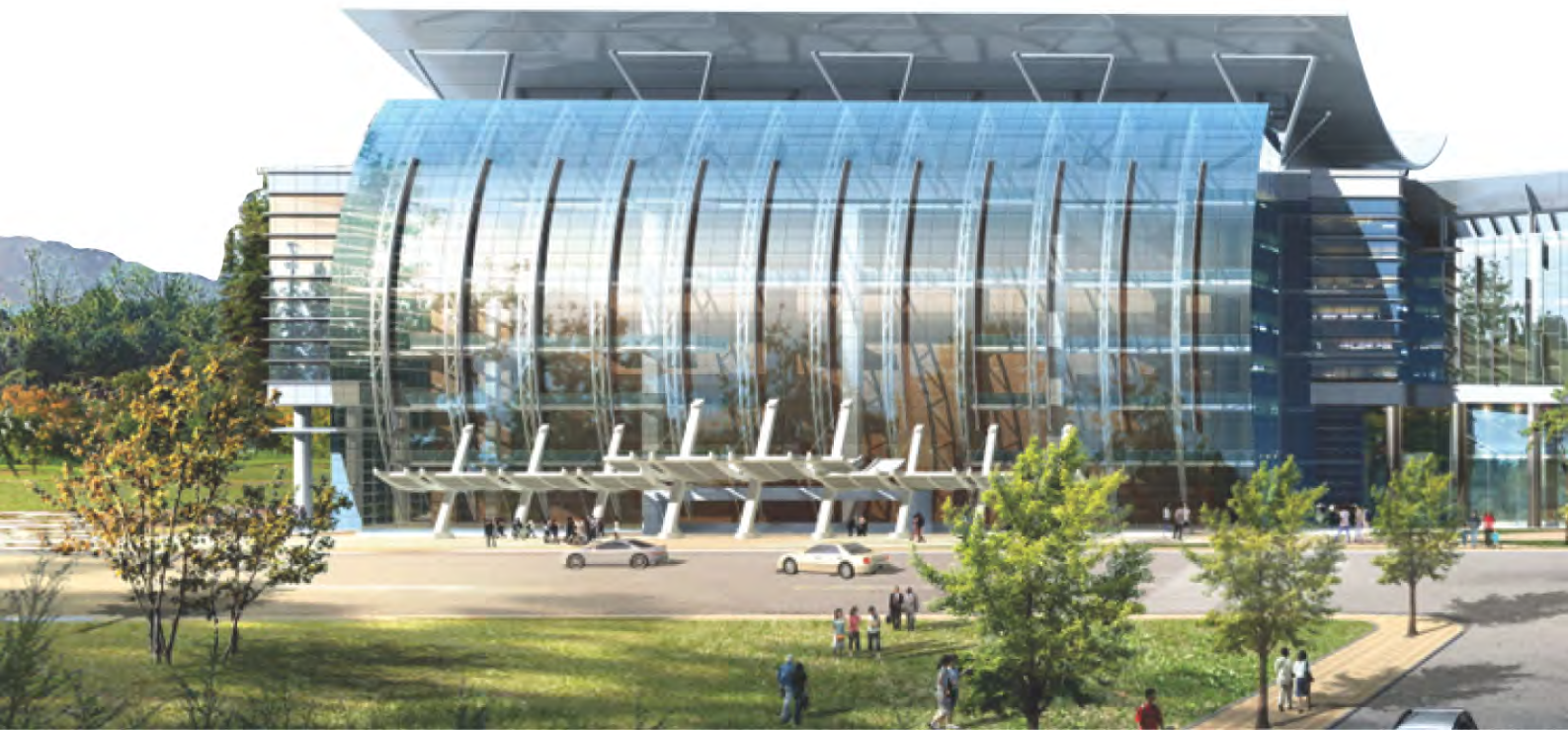
지역 경제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

EXCO측은 “개관이후 2009년까지 총 3만2천336명의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9천9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지도 수직상승

EXCO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관 첫해인 2001년 16개 전시회에서 2006년엔 44개, 이어 2007년부터는 매년 50개를 웃돌고 있다.

이는 매주 평균 전시회 1개씩, 회의는 매일 2건이상 열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체만 누계기



● 최근 5년간(2006~2010) EXCO 전시컨벤션 현황

구분\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시회	44	52	53	51	51
컨벤션	18	22	23	22	21
이벤트	39	43	34	26	33
회의유치	590	632	549	452	698
참가업체수	2,610 (364)	4,148 (360)	4,365 (755)	1,693 (738)	4,367 (735)
부스규모	6,852 (975)	8,904 (802)	10,021 (2008)	3,779 (1,208)	9,918 (1,810)

준으로 2만7천892곳을 헤아린다. 부스 규모로는 무려 6만 957개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개관이후 전시회와 컨퍼런스, 이벤트를 참관한 누계 방문인원만 연 평균 기준으로 적게는 160만명에서, 많게는 260만명으로 집계되는 등 지역 전시컨벤션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전시회도 잇달아 열리고 있는 등 인지도 또한 수직상승하고 있다. 국내 대표 전시회로 성장한 그린에너지 엑스포가 대표적이다. 이 엑스포는 지난해 기준으로 22개국에서 335개업체가 참가해 1천여부스(해외업체 41%)규모로 개최돼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에너지 관련 전시회로 성장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올해로 8회를 맞는 '2011년 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는 EXCO 전관을 사용해 사상 최대 규모인 2만7천㎡ 면적에 세계 23개국에서 400개 업체, 1천200여 부스 규모로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 대표 전시회로 성장한 산업전은 이보다 훨씬 많다. 대구국제안경전, 대한민국과학축전, 대구아트페어, 국제섬유기계전 등도 관련분야의 국내 대표 전시회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확장사업 시너지 효과 극대화

EXCO 확장사업 역시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말 마무리한데 이어 지난 5월19일 정식 개관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순수 전시장면적 규모는 기존 1만1천여㎡에서, 두배가량 늘어난 2만3천㎡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특히 이번에 확장된 전시장은 기존 건물의 복층 구조가 아니라 단층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1층면적만 1만5천㎡ 규모에 달하는 것이다. 국제적 규모의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이점이 많다는 뜻이다.

이뿐만 아니라 회의시설 역시 기존 24개에서 34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 국제 학술대회 2개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는 등 국제적 규모의 학술대회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CO 오경묵 홍보팀장은 "엑스코 확장에 따라 그린컨벤션 센터로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질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올핸 흑자경영 기조가 한층 확연해 질 것으로 기대되는 등 지역 컨벤션산업의 장밋빛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순대 산업전문기자



‘고장난 아이폰’ 순식간에 똑딱

수리비용 최소화 가격 거품 제거
서울 등 전국 각지 ‘의뢰 물량’ 쇄도
‘아이폰대구’ 창업 성공스토리



아이폰 수리 아이템으로 창업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소상공인이 주목받고 있다. 대구 달서구 죽전동의 다원빌딩 4층에 입주해 있는 ‘아이폰대구’의 육정환(41)사장이 주역이다. 창업 1년만에 지역을 뛰어넘어 국내 대표 사설 아이폰 수리점으로 성장한 ‘아이폰대구’의 성장동력과 경영 노하우, 차별화 마케팅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휴대전화 단말기 분야 최고 전문가

사설 아이폰 수리점으로는 대구에서 두 번째로 지난해 5월 문을 연 ‘아이폰대구’에는 하루 평균 전화문의만 적게는 30통에서, 많게는 40통을 헤아릴 정도로 고객들로부터 인지도가 높다. 직접 수리를 맡기는 고객도 하루 평균 10~16명에 달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5월 현재 대구지역의 아이폰 사설 수리전문점은 10여 곳 정도로 파악된다.

이 중 ‘아이폰대구’는 수리만족도가 단연 으뜸이다. 어떤 고장도 완벽하게 수리받을 수 있는 사설 수리점으로 이름이 높다. ‘아이폰대구’를 경영하고 있는 육정환 사장은 휴대전화 단말기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주저 없이 꼽힌다.

화려한 이력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동대구지점에서 휴대전화 파트에만 15년을 근무한 관련업계 최고 베테랑으로 정평이 나 있다.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된 아날로그 모델에서부터 디지털폰, 2G, 3G폰 등에 이르기까지 죄다 그의 손을 거쳤을 정도다.

아이폰 수리 틈새시장 공략 적중

그가 고장난 아이폰을 아이템으로 창업시장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것은 지난 2009년 연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한 지인이 술자리에서 대뜸 자신이

최근 장만한 아이폰이 고장났는데, 애플사의 국내 공식 수리업체에 문의했더니 수리비용만 29만원에 달했다는 푸념을 하더군요. 지나치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가격 거품을 뺀다면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창업시장에 뛰어 들었습니다.” 아이폰 사설 수리점을 오픈하기로 결심한 그는

망설임 없이 지난해 1월 창업 신화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한다. 이후 그는 닉 달여에 걸쳐 아이폰 단말기의 분해, 조립에 열중했다고 한다.

단말기 회로구조는 삼성전자, 애플 등 각 제조업체마다 거의 차이가 없지만 스마트폰의 분해, 조립에 익숙하지 않아 이 작업만 집중적으로 반복 연습했다는 것이다. 그 만큼 아이폰의 회로 성격을 완벽히 이해하고 분해, 조립할 수 있는 전문가는 지역에서 드물다고 한다. 아이폰 수리 아이템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그의 생각은 시장에서 정확하게 적중했다.



창업 1년을 맞은 '아이폰대구'는 이미 지역을 뛰어넘어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의뢰 물량'이 쇄도하고 있다. 한 달 평균 전국에서 밀려드는 택배물량만 40여건을 헤아린다. 성장속도도 눈부시다. 수리 물량이 넘치면서 5월 중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대구지하철 2호선 용산역 인근으로 확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가격 거품 제거 성공 창업 밑거름

고객들의 이용 만족도가 이처럼 높은 것은 완벽한 수리 노하우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 경쟁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수리비 부담을 줄여 고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수리비용을 최소화 가격 거품을 대폭 없앤 덕분이기도 하다. 문제가 생긴 부품만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때문에 가격 거품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는 게 '아이폰대구' 측의 설명이다.

이와 달리 아이폰 고장시 국내 공식 지정 수리업체에 맡길 경우 경비 부담이 만만찮게 소요된다.

'아이폰대구'에 따르면 아이폰 고장시 공식 수리채널을 거치면 강화유리와 액정으로 이뤄진 상판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최소 13만원 이상 소요된다.

하판은 고장 경중과 관계없이 이보다 훨씬 비싸다.

충전잭이 고장나던 모터에 이상이 생기든 상관없이 수리비용만 29만원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인기의 비결은 이 뿐만이 아니다. 고객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믿음 경영'도 한 몫하고 있다. 아이폰4의 경우 액정과 강화유리, UV몰딩이 하나로 이뤄진 일체형으로 제작된 때문에 파손 시 비용이 만만찮은데, 폰 케어 등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을 권하고 있는 등 수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 기기 오류를 고장으로 착각해 방문하는 고객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수리점에서는 이 경우 공임비를 받지만 '아이폰대구'에선 절대 받지 않습니다. 단순한 기기 오류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믿음 경영의 일환이죠."

'아이폰대구' 측은 이용 고객들이 맡기는 잦은 고장 건으로 침수에 따른 회로 이상과 충격으로 인한 내부 파손이 주를 이룬다고 귀띔했다.

예컨대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단말기 침수시 '되돌아가기 버튼'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데, 콘넥터 1번과 GND 부근의 저항값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때 발생하는 고장이라고 한다. 이런 고장은 침수시 회로 뒷편의 연결패턴이 부식될 때 자주 발생하는데, 저항값을 기준치 이상으로 끌어올려주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것이다. 또 외부 충격시에는 간혹 액정에 불이 켜지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회로 조정 작업만으로 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IT기기 전시·체험장 대구 조성 목표

'아이폰대구'는 전국의 아이폰 사설 수리점 가운데 이미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성장 동력의 밑바탕엔 차별화 마케팅과 함께 고객 감동 경영이 깔려 있다.

가령 고장난 아이폰을 고칠 땐 고장 이전 상태와 동일하게 수리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리 제품에 있는 고객 지문과 스티커까지 그대로 남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아이폰대구' 육정환 사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 수준의 수리 만족도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서울의 애플 스토어(Apple Store)를 능가하는 이동통신 기반의 IT기기 전시·체험장을 대구에 설립하는 게 궁극적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서기대 취재부장

“안된다, 포기란 결코 없습니다.”

‘뚝심의 컨설턴트’
김경숙 대구시소상공인지원센터장



“저의 생애에 안 된다. 불가능하다. 포기란 말은 결코 없습니다.”

창업신화에 도전장을 내민 예비창업자들 사이에서 ‘성공창업’의 전도사로 통하는 뚝심의 컨설턴트가 있다. 경영컨설턴트 경력 11년의 지역 최고 베테랑 컨설턴트로 이름 높은 대구시소상공인지원센터 김경숙 센터장이 주인공이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09년 초 40, 50대 중년층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성공창업 지침서인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중년층의 창업성공하기’를 발간해 주목받고 있다.

경영컨설턴트가 된지 10여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소개한 이 책은 현재 교보문고 등 지역 서점가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그녀의 삶 역시 이 책 제목과 닮은점이 유난히 많아 보인다. 직장인에서 주부로, 다시 경영컨설턴트로 ‘인생 이모작’을 성공적으로 열어젖힌 그녀의 삶을 되돌아보면 더욱 그렇다. 김 센터장은 올 5월로 경영컨설턴트가 된지 꼬박 11년이 된다. 20~30대 LG그룹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근무한 그녀가 경영컨설턴트가 된 것은 마흔을 넘긴 적지 않은 나이였다. 정확히겐 지난 2000년 6월부터다. 당시만하더라도 취업에 나서겠다는 그녀를 향한 사회적 시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40을 넘긴 늦깎이 나이에, 그 것도 여성의 몸으로 취업에 다시 성공하기란 결코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10여년 간 이 길(경영컨설턴트)을 걷으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의 아픔을 딛고 ‘성공창업’을 위해 제 2의 삶을 내딛으려는 주위 이웃에 꿈과 용기, 희망을 심어줄 수 있어 크나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웃음)”

그녀는 하루 24시간이 너무나 부족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루에 고작 4시간정도만 잠을 청한다. 그리고 오전 5시에는 반드시 일어난다.

일간지에 연재하고 있는 창업 칼럼뿐만 아니라 8년여째 이어오고 있는 라디오 창업 관련 프로그램의 진행 준비를 위해서란다. 출근이후에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 업무는 물론 창업교육, 경영컨설팅을 위한 현지 방문 등으로 그야말로 분주함의 연속이다.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다지만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최악 수준입니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구제역 파동에도 일본 대지진에 따른 방사성 공포마저 지역 외식시장에 휘몰아치면서 매출 감소 등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경영컨설팅을 위한 현장 방문 시 늘 최선을 다하지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불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 중도(中途) 포기도 결코 없다. 성공할 때까지 힘써 노력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노하우와 열정을 쏟아 넣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관련 업계에서 드물게 박사학위도 받았다. 자신을 찾는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나은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란다.

“대충대충은 절대 곤란합니다. 창업성공의 비결은 결국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는 자의 몫이죠. 소상공인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기대 취재부장

김경숙 센터장의 창업상담실 Q&A

Q 저는 올해 43세의 남성이며, 음식점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입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총 소요자금은 1억5천만원이지만 자기자금이 1억이며 약 5천만원 정도 부족해 정부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 지인을 통해 들은 얘기로는 현재 창업자금이 소진되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자금지원을 받아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하더군요.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해 확인한 결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정책자금 지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포함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하는 것도 창업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지요?
둘째, 창업자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사업자등록 후 몇 개월까지 자금신청이 가능한지요?
셋째, 2011년 현재 기준으로 대출금리와 상환방법은 어떠한지요?

A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김경숙센터장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자금은 현재 조기 소진되어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우선 지원대상자로서 정책목적자금 중 장애인자금을 제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지원자금(수준평가 결과 3등급 이상 우수등급을 받은 브랜드) 시니어창업지원자금과 신사업개발지원자금 또는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스마트인터넷 카페지원자금, 재해지원자금, 여성가장 등 장기실업자인 경우에는 현재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책자금은 아니지만 은행자금을 연 6%대의 자금은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행자금을 신청하려면 대구신용보증재단(554-53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첫째,**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하는 것도 창업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지요?
→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것을 인수하는 경우도 인수창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이 됩니다.
- 둘째,** 창업자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사업자등록 후 몇 개월까지 자금신청이 가능한지요?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이면 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경영개선자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셋째,** 2011년 현재 기준으로 대출금리와 상환방법은 어떠한지요?
→ 2011년 5월 현재 금리는 연 4.16%이며, 3개월 변동금리입니다. 상환방법은 1년거치 4년간 균등분할 상환하여 총 5년간 지원되는데, 여기서 균등분할상환은 지원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분기별로 균등분할상환하는 것을 말하며, 나머지 30%는 5년 만기에 일시로 상환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소상공인지원센터(053-629-4200/홈페이지 : www.sbdc.or.kr)로 방문 상담하면 됩니다.

대구시에 바란다



대한민국 3대 도시 대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중 꼴찌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구의 GRDP(지역내 총생산) 규모만 들여다 보아도 그런 마음이 든다. 경쟁도시와 비교하면 한숨이 더욱 나온다. 관광도시, 컨벤션도시로 거듭난 인근 부산과의 경제적 격차는 너무나 커 보인다. 심지어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에도 추월당한지 이미 오래다. 제조업 기반이 열악한 대구의 살길이 무엇일지 고민이 깊어진다.

성장동력이 없다

산업화시기 대구 역시 찬란한 영광을 누린적도 없지는 않았다. 1970~80년대 대구는 섬유산업이 호황기를 누리며 우리나라 3대 도시 반열에 당당히 올랐다. 90년대 들어 섬유산업의 몰락과 함께 주력 산업인 건설업체의 줄도산이 잇따르면서 자금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성장 동력이 멈춰진 상태다. 왜 이런 참담한 상황에 빠진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진다. 대구시도 그래서 지식기반산업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나아가 메디컬도시로 거듭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레드오션만으로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예를 들어보자. 경제자유구역을 확보하고도 해외 기업 유치에 성공한 자치단체가 과연 몇 되는가. 인천, 부산·진해, 광양시 모두가 외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메디컬도시’ 대구의 현실 또한 안타깝다. 비교 우위에 있는 서울과 부산의 틈바구니에서 고전하는 모습이다.

자생력을 키우자

필자는 대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한다는 것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방편으로 해바라기마냥 중앙정부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대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토 중견기업 육성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 육성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시의 역할이 중요한데, 다소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 아쉽게 느껴질 때가 적지 않다.

언젠가 지역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경영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필자에게 이런 말을 남기며 대구시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 이야기는 대략 이렇다. 향토기업이 대구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서운한 감정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수도권 외지업체가 대구에 진출할 때 제공되는 공장부지 매입비 지원, 법인세 및 취득, 등록세 감면·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달리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은 쥐꼬리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출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향토 장수기업들도 이 점에는 한 목소리로 아쉬워하는 것 같다.

경쟁력 갖춘 중소기업을 키워야한다

지난 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 육성은 전국 각 지자체의 최우선 핵심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각 지자체마다 차별화된 정책을 선보이고 지역 경제인의 요구 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있는 등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계 제일의 중소기업 강국(強國)으로 꼽히는 대만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대만은 지난 50년 대부터 최근까지 연 평균 8% 안팎의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중소기업에서 출발한 에이서, HTC, 아수스 등 대만의 상위 브랜드의 가치는 12억 달러를 웃돌고 있는 등 글로벌 IT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대만이 중소기업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경쟁력은 무엇일까. 기업들의 아낌없는 투자뿐만 아니라 조세 감면, 수출보조금 및 연구개발비 지원 등 행정기관의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지원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물로 분석된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책이 중소기업 강국 대만을 일궈낸 밑거름이 된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대구시도 최근 시 조례 시행을 통해 향토 장수기업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등 지원, 육성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해야할 점은 대구시가 부르짖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정책이 향토기업에게는 헛구호에 그쳐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자생력을 키우자.

대구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첫 걸음으로 지역에 뿌리를 둔 향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강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대구시에 과감히 제안하는 바이다.

Travel Sketch

추억이 머무르는 곳



※자료출처 : 안동시

안동 하회마을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하회마을.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이 마을은 1999년 영국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다녀간 이후 유명세를 타고 있다.

2010년 7월 31일 유네스코 34차 회의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연중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金)투자 관심 집중

국제 금가격 강세...향후 전망은 명암교차

기축통화인 달러 약세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안전자산인 금(金)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들어 국제 현물, 선물시장에서 금 거래가격은 하루가 멀다하고 요동치고 있는 등 전반적인 강세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다만 향후 금값이 더 치솟을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사이에서 의견이 분명히 엇갈리고 있다. 국제 금값이 연말까지 온스당 1천600달러를 돌파, 강세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주장에 맞서 완만한 하향곡선을 그릴 것이란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금 값 강세 지속

국제시장에서 금 거래가격은 지난 5월2일(미국 현지시간)기준으로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온스당 1천557.1달러에 장을 마쳐, 사상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는 전거래일인 5월1일보다 70센트 오른 것이다. 금값이 이처럼 요동치고 있는 것은 신흥국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달러약세, 리비아 내전 등 국제 정세 악화 여파가 한데 겹치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관련 투자법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금 투자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현금을 통장에 입금하면 금을 적립해 주는 시중은행의 금 적립 계좌가 있다.

나머지 하나는 금 관련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 투자법은 주로 금과 관련된 회사의 주식이나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향후 전망은 희비 교차

금값은 국제시장에서 당분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12개월 금값 전망치를 온스당 1천650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이 최근 경제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3명이 내년 상반기까지 금값이 더 오를 것으로 대답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금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다. 원자재 투자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최근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안에 금 값은 온스당 2천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가격이 많은 오른 금 거래가격이 조만간 내림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금값이 이미 오른대로 많이

오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원-달러 환율 하락 추세도 금관련 상품 투자 시 유의할 점으로 꼽힌다. 원-달러 환율 하락 장에서 환헤지를 하지 않고 금 관련 펀드나 금 적립 계좌에 투자 시, 금값 상승분 만큼 수익을 올리지 못하거나 환차손 때문에 반대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의 현인’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도 금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워런 버핏은 최근 오마하 퀘스트센터에서 열린 버크셔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금은 쓸모없다. 금값이 최고점에 근접한 상황에서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주요 매체는 전했다.

장경태 금융전문기자



한곳만 강조하자

'원 포인트 메이크업' 대세

올 여름시즌 메이크업 유행 트렌드

〈 사진제공 : 대구백화점 〉

올 여름시즌에는 눈매나 입술 등 얼굴 한 곳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원 포인트 메이크업'이 메이크업 유행 트렌드로 사랑받고 있다. 색상은 단연 핑크, 오렌지 등 비비드한 컬러가 유행의 큰 축을 맡고 있다.

올 여름 유행 트렌드는

2011년 여름시즌에는 얼굴 한 곳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원 포인트 메이크업'이 주목받고 있다.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한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에다 눈매나 입술 등 특정 부위만을 과감하게 강조한 메이크업이다.

이와 함께 선명한 아이라인과 긴 속눈썹, 상큼 발랄한 파스텔톤도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복숭아빛 립스틱도 올 여름시즌 주목해야 할 트렌드 컬러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자신의 피부톤에 맞는 명도와 채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보송보송하고 맑은 피부 결을 살려 피부톤을 정돈하고, 오렌지 컬러를 사용해 양볼을 생기 있게 표현해주면 된다. 은은한 필감이 느껴지는 핑크 단색 색도로 밝은 눈매를 연출하고,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로 인형처럼 또렷한 눈매를 완성한 뒤 복숭아빛 립스틱으로 입술을 연출하면 심플하면서도 로맨틱한 감성을 강조한 감각적인 룩을 완성할 수 있다.

만약 환한 피부에 어울리는 핑크 립스틱을 소화하고 싶다면 베이스 메이크업도 무난해 보인다. 이 경우 피부톤을 정돈한 뒤 라벤더 컬러를 사용해 건강한 혈색과 은은한 광택을 살려

주면 된다. 또 펄감이 느껴지는 오렌지 단색 색도로 화사한 눈매를 연출하고 아이라이너와 마스크라로 선명한 눈매를 그려주면 된다.

올 여름시즌에 도전해 볼 만한 컬러로는 그린계열도 눈길을 끌고 있다. 그린 계열의 아이새도를 소화하고 싶다면 맑은 피부결이 요구된다. 피부 톤을 정돈하고 은은한 오렌지 컬러를 사용해 부드럽고 건강한 혈색을 연출한 후 단색의 파스텔 그린 계열의 색도를 선택해 아이라이너와 마스크라로 또렷한 눈매를 완성해주면 된다.

입술은 채도가 높은 립스틱보다는 투명한 코럴 계열(산호빛)의 립글로스를 사용하고 눈매를 돋보이게 표현해주면 된다.

핑크 대(對) 오렌지

이처럼 올 여름시즌 유행 컬러로는 오렌지, 블루, 핑크, 레몬 등 비비드 계열이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중 단연 돋보이는 색상으로는 생동감을 살릴 수 있는 오렌지 컬러. 화사한 핑크색과 함께 올 여름시즌 여성들의 필수아이템으로 자리 잡으면서 화장품 코너에서는 비비드 컬러의 아이새도우 뿐 아니라 립스틱, 립글로스 등 다양한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지역 유통시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뉴욕 럭셔리 메이크업 브랜드인 '바비브라운'에서는 '리치 립 칼라 SPF12' 비키니 핑크 컬러를 출시해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다.

'헤라' (HERA)매장에서는 한정 라인으로 '로맨틱 센트 (Romantic Scent)' 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제품은 오렌지 컬러를 중심으로 여성스러우면서도 화사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고안돼 마니아층이 두텁다.

이밖에 '오휘' (OHUI)에서는 프랑스 인상파 화가인 '르느와르'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메이크업라인 '오휘 워터컬러' 를 주력제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여름철 수분을 잡아라

고온다습한 무더위는 물론 자외선까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특히 촉촉한 상태의 건강한 피부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 때문에 철저한 클렌징은 물론 정기적인 각질 관리는 '피부 미인' 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

모공에서 분비되는 피지와 공기 중 먼지 등 오염물질이 산화되면 모공을 막고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슴기를 틀어 건조하지 않게 하고 수분 앰플이나 미스트를 사용해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브랜드별 주요 컨셉

'메이크업 포에버'에서는 1960년대 비시 스타일을 재해석한 스프링 룩을 내놓고 있다.

당시 여성들의 롤모델로 사랑받은 비시 스타일을 사랑스럽고 자유분방함, 통통 튀는 느낌을 강조한 2011년형 스타일로 재탄생한 것이다.

'슈에무라'에서는 자연의 생동감과 신비로움을 표현한 미스터리어스 모르포 룩과 차별화하지만 역동적이면서 우아함을 표현한 엘리건트 선셋 룩을 주력 제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미스터리어스 모르포 룩은 비비드한 아이 메이크업에 감미로운 핑크 치크와 립 메이크업이 조화를 이뤄 강렬하고 다이내믹한 느낌을 살려주는데 안성맞춤이다.

엘리건트 선셋 룩은 석양이 지는 파스한 느낌을 아이 메이크업으로 표현하고 내추럴한 오렌지빛 치크와 입술로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을 돋보일 수 있도록 고안된 게 특징이다.

'헤라'에서는 꽃과 향기를 모티브로 재해석한 로맨틱 센트 룩을 내놓고 있다.

프리지아와 오렌지 블러섬, 로즈, 딥 라벤더 컬러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하거나 아이리스 컬러를 베이스로 사용하고 딥 라벤더 컬러로 라인을 그려주면 고풍적인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에스티 로더의 경우 관능적인 세련감과 함께 활기 넘치는 순수한 에너지에서 영감을 얻은 스프링 룩을 선보이고 있다.

대백프라자점 화장품파트 김성춘 담당은 "올 여름시즌에는 핑크와 오렌지와 같은 비비드한 컬러로 눈매나 입술 등 얼굴 한 곳만을 강조한 메이크업이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이한나 유통전문기자



대구 중구청 '내우외환'

현대백화점 주차타워
건립특혜의혹
중구문화원과 정관변경
둘러싼 파열음도



대구 중구청이 현대백화점 주차타워 건립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중구청은 이와함께 자치단체장에게 문화원 업무 보고를 의무화하는 정관 변경을 둘러싸고도 중구문화원과 파열음을 빚고 있는 등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겪고 있다.

현대백화점 주차타워 건립 특혜 의혹 조짐

민주당 등 대구지역 야 5당은 지난 5월2일 오전 중구 약령시 전시관에서 현대백화점 주차타워 건립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동 조사단 결과를 발표하고, 중구청에 사과와 해명을 공식 촉구했다. 야 5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백화점이 작년 12월 옛 교남 YMCA 건물의 보존을 위한 매입 자금으로 25억원을 중구청에 기부함으로써 주차타워 건설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거액을 중구청에 기부했다는 것은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특혜시비를 잠재우기 위한 무마용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야 5당은 이와관련, 중구청에 공개토론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주차타워 허가과정에서 불거진 편법으로 인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린 점에 대해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구청은 최근까지 대구 대표 근대 건축물인 계산동 2가 옛 교남 YMCA 건물을 원형 보존하기 위해 건물주 등과 매입협상을 벌여왔다. 지난 1914년 준공된 이 건물은 작년 8월 건물주들이 중구청에 주택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철거 움직임을 보였지만 대구시 문화재심의에서 변경허가신청이 부결되면서 신축 일정이 중단되는 등 담보상태를 빚고 있다. 오는 8월께 대구점을 오픈하는 현대백화점이 대구시지정문화재인 이 건물에 대한 매입비로 25억원이란 거액을 중구청에 쾌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순수한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구청이 작년 7월 대구시에 도시정

비에정구역 해제를 건의한데 이어 최근 주차타워 건축을 허가함으로써 특혜 의혹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업무보고 정관변경 둘러싼 파열음도

중구청은 최근 중구문화원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매일신문 등 지역 주요 일간지에 따르면 중구청은 중구문화원과 자치단체장에게 문화원 업무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 변경을 둘러싸고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중구청은 최근 중구문화원에 문화원 이사와 회원 절반 가량을 중구지역 주민으로 채우고, 실적 등 주요 업무 사항을 중구청장을 거쳐 대구시장에 보고하도록 정관 변경을 요구했다. 중구문화원이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을 기초단체장 등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관련 법령상 당연한 조치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구문화원은 중구청의 졸속 행정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중구문화원 안팎에서는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연말에는 정산해서 구청에 각각 보고하고 있는데, 굳이 한국문화원 표준정관에도 없는 정관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산하단체나 관변단체로 취급하는 증거로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두 기관은 중구문화원이 올해로 3회째 열고 있는 한시백일장을 두고도 마찰음을 빚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국대회 특성상 한시백일장에 중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해 달라는 중구청 측의 요구에 대해 중구문화원 측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편집국>

대구 농업인구 증가

지난해 기준 1만7천가구 5년새 4.3% ↑
경북은 감소...고령화 등 영농 포기농가 증가



대구의 농가 규모는 얼마나 될까.

정답은 지난해 12월1일 기준 1만6천988가구다. 이는 지난 2005년의 1만6천292가구보다 4.3%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농가인구는 5만501명을 기록, 2005년(5만343명)보다 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0년 대구·경북지역 농업총조사 잠정집계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8개 구·군 별 농가규모는 달성군이 6천165가구(36.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동구 3천619가구(21.3%), 수성구 2천408가구(14.2%), 북구 1천942가구(11.4%) 등이 뒤를 이었다.

농가 증감은 달성2차 산업단지 및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등 산업개발에 따라 달성군은 511가구(-7.7%) 감소한 반면 달서구 565가구, 북구 293가구, 동구 174가구 등은 가구유입이 늘어났다.

전체 농가 중 전업농가는 40.7%인 6천909가구, 겸업농가는 59.3%인 1만79가구로 2005년과 비교해 5년새 겸업농가 비중이 21.3% 수직상승했다. 농업 이외에 다른 일에 종사하는 농가가 꾸준히 늘고 있는 등 농업경영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영농형태별로는 논벼(34.5%), 과수(24.7%), 채소(23.9%) 등의 순으로 높았다.

그렇다면 경북의 사정은 어떨까. 대구시와 반대로 농가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1일 기준으로 경북지역 농가는 2005년(21만6천128가구)보다 6.7%가 감소한 20만1천664가구로 떨어졌다.

이 기간 농가인구 역시 49만1천765명을 기록해 2005년의 54만3천237명에 비해 9.5% 감소했다.

총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중은 1990년 38.6%에서 1995년 29.4%, 2000년 23.8%, 2005년 20.9%, 2010년 19.3%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어가(漁家) 역시 감소세가 두드러져, 2005년(5천517가구)보다 26.2% 감소한 4천71가구에 그쳤으며, 같은 기간 어가인구도 30.9% 감소한 1만429명까지 감소했다.

전체 가구 및 인구에 대한 비중은 0.4%로 떨어졌고, 겸업어가 비중은 57.8%로 2005년보다 4.4% 포인트 증가했다.

어가수입구조는 다양화 추세를 보였다. 어업형태별로는 어로어업이 95.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양식어업은 4.1%에 머문 가운데 어가 중 어선보유 어가는 61.2%로 5년새 7.4% 포인트 증가했으며, 5t이상 보유어가도 2.9% 포인트 증가했다. 2010년 12월1일 기준으로 경북의 임가는 2만3천869가구로 2005년(23,715구)보다 0.6% 증가했다. 이 기간 임가인구는 6만11명을 기록, 2005년의 6만1천120명에 비해 1.8% 감소했다.

전업임가는 6.2% 감소, 겸업임가는 반대로 1.2% 증가했다.

동북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 권혁윤 팀장은 "대구의 농업인구가 늘어난 것은 도시 근교 농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반대로 경북의 농가 규모가 큰 폭 감소한 것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영농 포기 농가가 늘어난 게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손지강 통계전문기자





어려운 이웃 위한 사랑·봉사 '으뜸'

대구농협 고향주부모임...회원수 3만6천명 지역 최대

고향주부모임은 1993년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농협의 대표적 사회 봉사 목적의 법인체다.

5월 현재 19개 지역농협에서 회원수 3만6천여명을 자랑하는 농협 고향주부모임 대구시지회(이하 고주모)는 대구농협의 육성조직의 하나로 지역사회에 나눔 사랑 실천을 모토로 운영되고 있다.

예산범위 실현가능 봉사활동 전개

회원수 규모로는 지역 대표 여성단체인 대구시여성단체협의회 산하 43 단체 중 단연 으뜸이다. 우선 예산운영상 여느 봉사단체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상당수 봉사단체들이 외부 원조에 의존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반면 고주모는 대구농협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예산안을 수립,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매년 새로운 봉사교육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고 있는 등 남다른 사랑 나눔 실천에 이목이 집중된다.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 대표적이다. 소외계층의 경우 병원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단순한 보살핌에서 벗어나 건강상태 체크는 물론 질병에 대한 예방 및 대처법을 알려주는 등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매년 달성공원에서 대구농협과 공동으로 5천명분의 친환경 농산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겨울철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통해 연간 5천700kg의 김장을 담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09년에는 난치병 학생돕기 사랑나눔 장터를 열어 수익금 전액을 대구시교육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매년 결손가정 자녀 60여명을 대상으로 1박2일 일정의 농촌

문화 체험학교를 열어 전통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인성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펼쳐 좋은 반응

올해 역점 사업으로는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고주모 담당자 대상의 한국어 교원양성 과정을 운영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주모는 지역사회 현안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데 힘 쏟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대구시교육청과 아동 성폭력 및 학교 폭력을 방지하고 안전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하고 지역 초·중학교 310곳에 학교 다중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아동 성범죄 및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또한 초·중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등 학교 인근지역 거주자 위주로 순찰단을 편성, 위해환경 및 CCTV 사각지대로 인한 범죄우발지역에 대한 지킴이 활동을 펼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빛과 소금같은 단체로 거듭나겠다

고주모는 아울러 올해 지역 최대 행사로 진행될 예정인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깨끗한 대구거리 조성 캠페인을 5월부터 실시하기로 해 이목이 집중된다. 매주 마라톤 코스 전 구간에 화분을 제공하고, 회원 모두가 참가해 환경미화를 위한 청소 봉사활동을 펼친다는 것이다. 고향주부모임 대구시지회 제7대 손미자 회장은 "고주모를 회원들의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빛과 소금같은 단체, 그리고 더불어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랑 나눔 단체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기대 취재부장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대한민국 최고 연구기관임을 자부합니다.

2001년 설립 이래(기획재정부 허가34호) 지난 10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3천여건의 학술연구와 원가계산, 경영컨설팅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공익 학술 연구기관입니다.



인력현황

- 해당 분야별 석·박사 30명
- 원가분석사 10여명
- 공인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등 다수 보유

법적자격현황

- 기획재정부 인가 학술연구기관
- 국가계약법에 의한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기관
- 지방계약법에 의한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기관
-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행정안전부 고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검토 전문기관
- 중소기업법에 의한 경영진단기관
- 국토해양부 개발비용산정·검토기관

www.kepi.or.kr



재단법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

본 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38-3
T. 053)766-0038 / F. 053)766-0379

IAAF
World Championships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1. 8. 27 ~ 9. 4 대구스타디움

www.daegu2011.org

국제육상경기연맹 공식파트너

